



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 
Research Institute

# 보도자료

보도

2019. 12. 12.(목) 조간부터

배포

2019. 12. 11.(수)

책임자

생명·연금연구실  
김규동 실장(3775-9049)

작성자

김규동 연구위원(3775-9049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담당역(3775-9115)

총 2매

## 보험연구원, 「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」 CEO Report 발간

### “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분석 및 관리 필요 ... ”

-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『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CEO Report 2019년 제4호)
- 본 연구는 최근 보험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를 소비자 측면과 보험회사 측면에서 분석하고, 건전한 보험산업을 위해서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
-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인데, 최근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 -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0~70% 수준인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~30% 정도 저렴함
  -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·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임
-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,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
  -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하거나,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경우,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

- 건강보험은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인 반면,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, 보험회사는 상품판매시에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고, 상품설계시에는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, 관련 민원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

□ 보험회사는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을 부담하게 되므로,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

- 보험회사들이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해지율과 차이가 많으며, 환급률이 낮은 보험 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됨
- 현 회계제도 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,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함
- 그러나 IFRS17 및 K-ICS 도입 시에는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
- 따라서,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함

□ 이에, 금융당국은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,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

첨부 : CEO Report "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". 끝.